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닭고기

광주 양동시장에 잘 가는 대폿집이 있다. 아, 그 시장 입구에는 육회를 살 수 있는 좋은 식육점도 있다고 쓴 적이 있다. 하여튼 그 대폿집을 가려면 지도에도 안 나와서 다니던 감으로 찾아야 한다. 수산물 골목을 지나 닭전을 거쳐야 한다. 살아 있는 닭 냄새가 나면 제대로 찾아가는 중이군, 하고 생각하게 된다. 산 닭의 냄새를 나는 기억한다. 닭을 기르는 사람이 맡는 냄새가 아니라. 닭전에 수용된 산 닭의 냄새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소, 돼지, 닭의 도축 문제를 고심했다. 일제 강점기에 이미 서울 시내에 있는 도축장을 외부로 옮기려고 계획했다. 조선시대 한양에는 시내에 많은 현방이 있었다. 현방이란 소를 잡고 매달아(懸) 파는 가겟방(房)을 의미했다. 정부에서 반합법으로 허락한 전문가들의 장소였다. 반합법이란 것은 조선은 소 도살을 금지하는 나라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이 먹었다. 그래서 노비 계급이 운영하는 현방은 '불법으로 소를 잡되' 대신 속전, 즉 벌금을 냈다. 일종의 조선시대식 편법이었다. 요즘으로 따지면 과태료를 내면서 그냥 불법적인 일을 계속하는 것인데 이 시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조선시대 소 잡는 일은 사실상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소 현방, 도살장은 점점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고 마장동, 독산동까지 갔다가 이마저도 폐쇄되고 더 외곽, 즉 경기도로 옮기게 된다. 마장동과 독산동은 이제 도매시장 역할을 한다. 광주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하지만 닭은 도축법 같은 걸 적용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다. 가용으로 길러서 닭 잡는다고 고발당하지도 않았다. 처리가 깔끔하고,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닭을 못 잡게 한 지 이미 50여 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다툼이 있다. 특히 토종닭 등을 잡아서 즉석에 팔아 생계를 잇는 식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별도의 법률이나 조례로 토종닭 등을 소규모로 도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과는 괴리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8년부터 전통시장 등의 인근 지역에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을 추진해 왔지만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하여튼 닭도 도축법의 적용을 받아서 산 닭을 잡지 못하게 된 것이다. 조류 독감 문제도 여기 끼어 있어서 복잡한 일이다.

닭고기의 위생 처리를 위한 관의 개입은 1970년대 중반에 이미 본격화되었다. 1975년 9월 농수산부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성남 등 7개 도시에서는 닭을 재래식 방법으로 잡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산 닭 즉석 도축은 이어졌다. 지금은 양계장 닭으로 100퍼센트 육계가 공급되는데, 오랫동안 닭 시장은 달랐다. 수집상이 시골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닭을 샀다. 온갖 품종이 섞여 있었다.

"빨간 닭, 노란 닭, 검은 닭 등 온갖 닭이 다 있었고 그렇게 산 닭을 철망에 넣어 배로 운반해서 인천까지 와서 팔았다." 한 시장 닭전 주인의 증언이다.

1981년 정도가 되면 단속이 심해진다. 산 닭을 진열해서 팔기 어려워진다. 닭의 부산물을 우리가 거의 먹지 않게 된 것도 그 즈음이다. 도축장과 소비지의 거리가 멀어지고, 산 닭을 바로 잡지 않으니 내장은 사람들이 접하기 어려워졌다. 산 닭 시절에는 모래집, 간, 내장, 닭발 등을 알뜰하게 챙겼다. 닭 내장 전골집도 참 많았다. 일반 전골에 비해 아주 쌌기 때문에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다. 이제는 참 찾기 어렵다.

닭은 개화기에 선교사, 일제 강점기엔 서양 닭 품종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토종닭보다 알을 많이 낳고 살이 빨리 찌는 품종을 도입한 것이다. 토종닭은 일 년에 100개 미만의 알을 낳지만 현재의 산란계 품종은 거의 300개까지도 알을 낳는다. 매일 낳는 셈이다. 프라이드치킨으로 쓰는 육계도 엄청나게 빨리 자란다. 육종, 사료 발달로 불과 30일도 안되어 시중에 풀린다.

닭고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단백질 부족 시대를 더 오래 견뎌야 했을 것이다. 소와 닭은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먹는 만큼 고기로 돌려 주는 비율이 적다는 뜻이다. 그만큼 수입 비율도 높다. 소비에 비해 기르는 일이 따라가지 못한다. 닭은 그런 면에서 가난한 우리들에게 효자 육류였다. 자급률이 아주 높다. 가공용을 빼면 사실상 자급도 가능하다. 오늘도 우리는 프라이드치킨 한 마리와 닭칼국수와 백숙 한 냄비의 즐거움을 누린다. 좋은 닭을 키우고, 닭고기 요리를 만드는 많은 요리사들에게 고맙다. 닭고기 만세다.

〈음식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임플란트 실패하지 않으려면

양 건 일
조선대치과병원 치주과 교수

나이가 들면서 치아 상실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다. 임플란트는 좋은 치료법이지만 실패로 인한 문제점도 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탈 없이 오랫동안 임플란트를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임플란트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임플란트 구조물이 손상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경우다.

임플란트 파절은 구조물이 손상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큰 힘을 충분히 버텨내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특히 수평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에 약하기 때문에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즐겨 먹거나, 이갈이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플란트의 직경이 너무 얇거나, 식립 위치나 각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플란트 파절이 보다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치아의 형태에 맞게 적절한 직경과 길이의 임플란트를 힘이 가해지는 방향에 맞춰 심어야 한다. 해부학적 구조물로 인해 길이에 제한이 있다면, 직경이 굵은 임플란트를 사용하거나 다수의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보철물을 제작하는 것도 파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임플란트 주변의 세균이 염증을 일으켜 잇몸 뼈가 녹고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것을 말한다. 이를 방지하려면 철저한 자가 관리와 주기적인 치과 내원이 중요하다. 그러나 임플란트 주위염이 꼭 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임플란트 나사 표면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임플란트는 뼈와 직접 연결되어 지지를 얻는 구조이므로, 임플란트 표면에 뼈 세포가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 특성 때문에 임플란트 표면이 구강 내로 노출됐을 경우 세균도 쉽게 달라붙는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식립 시 주변으로 최소 1.5 ~ 2㎜ 이상의 잇몸 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플란트 식립 후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재식립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치료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더 복잡하고 어렵다.

재식립에 앞서 기존의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하는데, 임플란트는 치아와 달리 표면에 나사선이 있고, 뼈와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치아처럼 힘을 가해 뽑거나 나사처럼 돌려서 뽑을 수 없고, 나사 주변의 잇몸 뼈를 갈아낸 다음에 제거 해야 한다. 그래서 제거 과정 자체도 쉽지 않고, 이 과정에서 없어진 잇몸 뼈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잇몸 뼈 이식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임플란트 재식립은 요구되는 스트레스도 더 많을 뿐 아니라,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남아있는 잇몸 뼈의 양에 따라 뼈 이식 수술의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고난이도 수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 임플란트의 재식립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남아있는 잇몸 뼈의 상태다. 만약 재식립이 필요하다면, 치료를 미루지 않고 빨리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치료가 늦어질수록 뼈의 흡수가 심해지고 수술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적절한 두께와 높이의 잇몸 뼈는 재치료에 있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명심하자.

광범위한 잇몸 뼈 이식 후에는 잇몸 형태가 식립 전과 달라져서 음식물이 더 잘 끼게 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잇몸 형태 개선이 필요하다. 치아 주변의 단단한 핑크빛 잇몸을 부착 치은이라 하는데, 잇몸 뼈가 흡수되면서 같이 소실된다. 부착 치은의 양이 줄어들면 음식물이 쉽게 임플란트 사이에 끼고,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할 때 잇몸에 쉽게 상처가 나서 불편감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임플란트 주위염에 걸린 경험이 있거나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했다면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반드시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 이식을 해 부착 치은을 확보해야 한다. 잇몸 이식의 경우 회복까지 2주~4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며, 그 후에 최종 보철을 진행할 수 있다.

임플란트의 관리를 위해서는 환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고, 그와 함께 치과 진료가 잘 이뤄진다면 오랫동안 탈 없이 임플란트를 잘 유지할 수 있다. 잇몸 건강에 좋다는 여러 가지 영양제나 건강 보조제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런 약물들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치과 검진과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

기 고

호남 문화와 세계 기록 유산

천 득 염
한국학호남진흥원장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가 확실 시되고 있다. 한반도 남부 유적 일곱 개소를 하나로 묶은 넓은 구역의 연속 유산이다. 한국의 유산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15건 1154점(2021년 기준)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동학 농민 혁명 기록물과 4·19혁명 기록물도 역시 세계 유산과 유사한 가치를 지니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으니 문화 강국으로서 쾌거를 이룬 모습이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은 현대 세계인들이 공유하는 문화유산적 가치 척도이다. 수많은 국가에서는 자국의 문화유산이 보다 많이 보다 빨리 세계 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호남 지역에서도 호남의 유산 중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발굴, 검토하여 세계 유산 등재에 각별한 준비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세계 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와 자연의 요소가 복합된 복합 유산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에는 2021년 현재 총 13개의 세계 문화유산과 두 개의 자연유산이 등재되어 있다. 호남 지역에는 '고창과 화순 고인돌 유적' '산사 한국의 사원'으로서 선암사와 대흥사가 있고 '한국의 서원'으로서 장성 필암서원과 정읍 무성서원이 있다.

이들 세계 유산과 함께 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라는 유사한 문화유산이 있다. 세계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보존 활용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1997년부터 지정하는 기록 문화유산을 말한다. 오래된 한국의 전근대 자료로서는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동의보감, 한국의 유교책판 등이고, 근현대 자료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새마을운동 관련 자료,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등이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이들 중에서 호남 지역에 뿌리를 둔 기록 문화유산은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에 불과하다. 세계 기록 유산은 2021년 현재 16건을 보유하고 있어 아시아권에서는 제일 많고 세계에서는 5위에 해당한다. 반면 일본은 기록 유산이 보다 적다. 이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 낸 기록물이 빈약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리 호남 지역에 이런 존재가 있을까? 현재 세계 유산 등재에 우선하여 잠정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대상은 강진 도요지, 염전, 낙안읍성, 화순 운주사 석불 석탑군, 남해안 일대 공룡 화석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새로운 대상을 찾아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문화적 속성을 잘 파악하여 새로운 세계 기록 유산의 대상을 찾아내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그렇다면 어떤 기록 문화유산이 있을까? 호남이라는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절의, 풍류, 도작 문화, 농경, 해양, 예, 민속, 실학, 금석문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들 중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수월성을 지니는 것을 찾아내고 우선적으로 등재를 준비하는 과업이 우선이다. 향촌 사회의 규약인 향약(鄕約), 가족의 뿌리를 찾는 족보, 과거시험 관련 자료인 시권(試券), 일기 자료, 금석문, 시서화, 누정과 원림 등도 등재에 도전해 볼 만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세계 유산 등재 작업은 최소 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사업일 뿐 아니라 제도, 법령, 예산, 전문 인력 양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최적의 보존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집약적 과정이다. 따라서 해당 유산의 가치 보호, 보존 관리 계획 수립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등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 규명과 문화적 자존의 제고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때이다.

社 說

나사 풀린 비엔날레 홍보, 관리 어떻게 하길래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광주비엔날레 홍보를 하면서 연신 헛발질을 하고 있다. 비엔나 소시지를 광주비엔날레 홍보 영상으로 제작해 논란을 빚더니 이번에는 페미니즘 비하와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광주시는 공식 유튜브 채널인 '빛튜브'에 올린 광주비엔날레 홍보 영상에 "비엔날레가 페미니즘 사상 전파 도구로 쓰였다는 의심이 든다. 시민들의 관심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댓글이 올라오자 '좋다'는 의미의 하트를 눌러 비난을 사고 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이 100개가 넘는 댓글 중 광주시 공식 채널이 이 댓글에만 '좋아요'를 눌렀다며 트위터에 업로드하면서 1주일 만에 21만여 명이 읽고 3200여 회 리트윗 됐다.

누리꾼들은 이 댓글이 페미니즘을 비하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광주시가 동조할 수 있느냐며 비판한 것이다. 문제가 되자 광주시는 소시지 논란 때도 내리지 않았던 홍보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시는 빛튜브를 대전에 있는 업체에 외주를 줘 운영하고 있는데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 외주 업체 직원이거나 광주시 담당자 중 한 명일 것으로 추정된다. 누구의 잘못이든 관리 주체인 광주시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비엔날레 재단도 얼마 전 홈페이지 팝업 창에 '일베 인증 손 모양'과 유사한 이미지를 올렸다가 전국적인 망신을 샀다. 아무 생각 없이 무료 제작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 팝업 창에 띄웠다가 5만 4000여 명이 가입한 문화·예술 전문 블로그에서 문제를 삼자 나흘 만에 내린 것이다.

중반을 넘어선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그렇지 않아도 흥행 면에서 실패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무신경한 홍보물 제작과 관리 부실로 이미지를 흐리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광주시와 재단은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관리로 광주비엔날레 위상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능화되는 보험 사기 적극 신고로 뿌리 뽑아야

광주 지역에서 거짓으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타 내는 보험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범죄 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 지역 보험 사기 적발 건수는 2019년 344건, 2020년 111건, 2021년 285건, 2022년 170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30건 등 모두 940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2601명이 검거됐고, 피해 금액은 329억 원에 이르렀다. 전국적으로 적발된 보험 사기 액수는 2020년 8986억 원, 2022년 1조 818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진단서를 위·변조하거나 입원 수술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지난해만 1만 73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 상해를 자동차 사고로 위장하거나 기존 질병을 상해 사고로 속이는 경우도 2년 새 30% 이상 급증했다.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폐차 직전의 외제차를 싼값에 사들인 뒤 고액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고의 사고를 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SNS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는 고의로 불을 질러 화재 보험금을 타내거나 보험 설계사가 지인들과 공모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도 있었다. 의사·간호사들이 공모해 허위 진료로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처벌받기도 했다.

보험 사기는 보험 재정의 부실과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그 손실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 행위다. 한데도 보험 사기로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뿐 이미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 의무는 없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아울러 수사 당국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도 의심 사례를 적극 신고해 더 이상 보험 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손 글씨 대회

어느 장소에 들러 방명록을 들춰 볼 때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글씨체를 유심히 본다. 간단한 이름 석 자에서도 누군가의 고유한 이미지를 상상해 볼 수 있어 즐겁다. 아주 잘 쓴 글씨도 인상적이지만 아무래도 눈길이 가는 건 개성이 담긴 글씨체다.

지난달 순천 은하수갤러리에서 열린 이태호 교수의 '나 찾다가 텃밭에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전에는 글과 그림이 어우러진 수묵화와 여러 시인들이 자신의 대표작을 손 글씨로 쓴 작품들이 함께 전시됐다. 아기자기하고 단정한 느낌이 나는 곽재구 시인의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고, 정호승·김용택 작가 글씨체도 인상적이었다.

며칠 전 서점에 들렀다 '교보 손 글씨 대회' 응모지를 발견했다. '손글쓰기문화확산위원회'(위원장 신달자)가 주관하고 교보문고가 주최하는 행사로 감명받은 책 속 문장(50자 이상)을 손으로 적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응모하는 이벤트다.

손 글씨 대회는 지난 2015년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9340명이 응모,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가 가장 많이 인용됐다. 으뜸상으로 선정된 글씨체는 디지털 폰트로 만들어지는데, 지난해에는 83세 할머니의 '김혜남 서체'가 개발됐다. 나카가와 히데코의 책 '음식과 문장'의 한 구절을 쓴 그의 글씨에 대해 심사위원이었던 유지원 타이포그래퍼는 "간결하게 새침한 모습, 곡선에 싱싱한 탄력이 있는 글씨"라 평했다.

손으로 필기한 학생의 수업 이해 능력이 노트북으로 필기한 학생보다 높다든지, 집중력을 키워 주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든지 등 손 글씨의 효과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손 글씨가 갖고 있는 매력은 많다. 긴 편지를 쓸 때는 나 역시 컴퓨터를 이용하지만 짧은 편지나 메모는 일부러 손 글씨로 써 전해 주곤 하는데, 쓰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친밀감을 느끼는 것 같다.

올해는 가장 좋아하는 필기도구로, 가장 좋아하는 문장을 적어 손 글씨 대회에 응모해 볼까 싶다. 손 글씨도 의미 있지만, 좋아하는 책의 구절을 찾는 과정 역시 커다란 즐거움이다. 정성 들여 손으로 써 내려간 그 문장은 영원히 내 것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응모 마감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8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